

# “동복댐 수위조절 못해 동복·사평 침수 키웠다”

### 주민들, 광주시에 ‘피해보상’ 진정...공동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 화순군의회, 댐 항의 방문...일부 의원 “관리권 화순군 환원해야”

화순 사평·동복지역 주민들이 “동복댐의 수위조절 잘못으로 침수피해를 키웠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화순군의회도 동복댐을 항의 방문, 댐 부실 관리와 운영 문제 등을 따졌다. 일부 의원들은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으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사평·동복 변영회 등 지역 주민들이 지난 18일 광주시장실을 방문해 동복댐 방류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 보상, 재

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과거 어떤 태풍과 홍수에도 넘치지 않았던 동복천이 지난 집중호우 때 갑작스러운 동복댐 방류로 인해 범람했다”며 “사평면 내리·용리·장전·장선마을 등의 주택과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광주시는 동복댐 물을 미리 방류

하지 않고 뒤늦게 수문을 개방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민은 “광주시가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동복댐 반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시에 집중호우 피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공동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화순군의회도 지난 19일 동복댐을 방문해 댐 수문 조절 잘못을 따졌다. 화순군의회는 “댐 상류지역인 이서면과 백야면, 하류지역인 동복면과 사평면에서 주택 9가구, 축사

1동, 농경지 90ha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 7.6km,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단수 22세대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동복댐 조성 당시에는 댐 관리권이 전남 광주시였으나 지금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로 광역단체가 구분된 만큼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으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본부장은 “동복댐의 안전과 상·하류지역 하천·제방의 영향 등 전반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순군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침수피해 보장 농기계종합보험 나주시 보험료 80%로 상향 지원

나주시가 침수피해를 입은 농기계의 손해 보상이 가능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상향 지원한다.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분 30%를 시비로 추가해 총 80%를 지원한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 총액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추락·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농기계 손해와 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배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등 총 12개 기종이다.

보험가입 신청은 나주시지역 모든 농협에서 연중 접수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 2018년 911농가에 8400만원, 지난해 855농가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가입 농가 수가 늘고 있다.

올해는 보험료 지원 확대 조치로 6월말 기준 1554농가(1877대)가 가입했으며 하반기 가입 농가는 내년 분예산을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이 가을과 겨울 예정됐던 축제 3개를 모두 취소하고 축제예산 전액을 수해 복구에 사용하기 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황룡강 노란꽃잔치’.

##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장성축제 모두 취소

장성군이 가을과 겨울 예정됐던 축제 3개를 모두 취소하고, 축제예산 전액을 수해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축령산 편백산소축제’에 이어 11월 ‘백양단풍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취소된 축제 예산은 전액 수해지역 응급 복구에 투입해 비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과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계획이다. 축제 취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은 만큼 장성군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가을 꽃축제로 발돋움했다.

황룡강 일원을 수놓은 10억여송이 가을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긴 꽃강’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축제 취소를 결정하고 감염병 대응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성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를 취소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어떠한 군정 목표보다도 우리에 있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모든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에 장성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청년 근속장려금 받아주세요 담양군, 내달 11일까지 추가 모집

담양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담양지역 11개 기업과 19명의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업과 청년에게는 4년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1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담양군 풀뿌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악취 때문에 ‘이청준 생가’ 못간다?

장흥 회진, 가축분뇨·폐기물처리장 가동...7개 마을 고통

소설가 이청준의 생가가 있는 장흥 회진면이 가축분뇨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장흥군 회진면 7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업체인 J산업이 회진면 진목리 922번지 일원 6449㎡(2100평) 부지에 종합재활용사업장(폐기물처리장)을 건립,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또 인근 914번지 일원에는 5059㎡(1530평) 부지에 가축분뇨(돈분) 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심각하다.

진목리에 악취 시설이 잇따라 생기면서 4km 이상 떨어진 주변 7개 마을에까지 악취가 진동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가축분뇨장은 A마을의 이장이 지난 2002년부터 가동 중이었는데 부지 일부를 J산업에 매각한 뒤 올해 1월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둔갑했다”며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어떻게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주민들은 또 “장흥군은 해당 가축분뇨처리장에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국비와 군비 등 총 9억87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특히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이시우(56) 씨는 “이청준 소설가 생가가 있는 회진 진목마을은 평소 전국의 문학인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악취로 인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J산업 측은 “이 곳은 하수처리 오니·유기성 오니·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는 종합재활용시설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음식물 슬러지나 생활쓰레기는 아니다”며 “다음달 내로 80% 이상 악취를 줄이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겠다”고 해명했다.

유양선 장흥군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분뇨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분비물을 포집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수치를 의뢰했다”며 “악취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새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타이어즈 공식지정치과

##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www.saewoori.com since 2002

##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원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